

애타우는 광주 문진위 지원 심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올 봄 공연을 준비중인 한 예술단체 대표 A씨는 지역 단체에 지원되는 문화예술진흥지원금(이하 문진기금) 등의 배분이 2월말에야 끝나는 바람에 작품 제작에 애를 먹고 있다.

작품 제작을 문진기금에 의존하는 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열악한 지역 여건상 문진기금은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공모에서 탈락할 경우에는 다른 작품을 준비하는 등 계도를 수정해야 하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공모 결과가 2월에 발표되는 터라 1~2월은 잠정휴업인 경우가 많다.

광주시가 지원하는 문진기금과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금(이하 무대지원) 선정 발표가 늦어져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금 지급 시기는 지역 예술단체들이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올해 역시 예전의 불편이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제주도와 경기도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지난해 이미 2008년도 사업비 분배가 끝난 점을 고려할 때 광주의 늦장 지급은 예술단체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금 배분을 위탁받은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문진위)는 올해 문진기금 4억 8천만원과 무대 지원 2억4천 600만원 등 모두 7억2천600만원을 배분한다. 무대지원은 25일 접수를 마감했으며, 문진기금은 29일에야 접수를 마쳤다. 현재로는 2월 20일을 전후해 지원작품을 선정할 계획이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칫 기금 지원이 3월로 미뤄질 우려도 있다.

반면 일부 지역의 경우 이미 지난해 2008년도 사업비 배분을 마쳐 각 단체들이 1~2월부터 활발히 사업들을 준비중이어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제주문진기금 운영을 맡고 있는 제주문화재단은 지난해 11월 공모 일정을 발표했고 12월21일 4억8천만원의 기금을 받은 단체와 개인을 확정했다. 1월에만 이미 10여건, 5천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돼 작품 제작 등이 진행중이다.

지난해 11월 공모에 들어간 경기문화재단 역시 지난해 말 15억원 규모의 기금을 358개 지역단체에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진행중인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각종 기금 지원 심사 늦어져 지역 예술단체들이 작품 준비 등에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은 광주예총의 합동공연 모습.

타지역 선정 마쳤으나 광주는 이제야 공모 마감 기금 배분 늦어져 예술단체 연간기획 엄두 못내

게 배부했다. 지난해 12월 공모를 진행했던 대전시는 설날 전까지 지원금 배분을 마칠 계획이며, 역시 지난해 12월 공모를 시작한 울산시는 지난 28일 1차 심사를 진행하는 등 지원금 배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의 늦장 지급은 문진위가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08년도 문진기금 심사위원회를 비롯, 심사와 관련된 비용을 책정해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지역 문화계 인사는 "배분이 늦어지면서 3~5월에 작품을 준비하는 일부 단체들의 경우 급하게

작품을 제작하느라 수준미달일 때도 있고, 많은 단체의 공연이 하반기로 밀리면서 공연장 잡기도 힘들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광주문진위 오건탁 위원장은 "회계연도에 맞춰 지난해 을 사업비 배분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배분이 늦어지게 됐다"며 "예술단체들의 불만이 높아 2009년 사업부터는 11월 공모를 시작해 12월말 지원대상자를 선정, 단체들이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재현·정상섭씨 일본 진출

2월23일부터 열리는 북동아시아 아트페스티벌 초대 작가 선정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화가 주재현씨와 서양화가 정상섭씨가 일본 무대에 진출한다.

두 사람은 오는 2월23~27일까지 일본 키타큐슈시 서일본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북동아시아 아트페스티벌(Northeast Asia Art Festival 2008(이하 NAAF))'에 참여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NAAF는 한·중·일·북한 4개국 작가 300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아시아의 관문인 일본 키타큐슈에서 열리는 특별초대전이다. 갤러리를 통하지 않고 작가가 직접 부스를 임대해 개인전을 열며, 동북아시아 미술

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주재현·정상섭씨는 별도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주최 측에서 추천을 받아 특별전을 여는 초대 작가로 선정됐다.

한국에서는 30여명의 초대작가와 70여명의 부스 임대 작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금·은박을 캔버스에 붙여 독특한 작품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주씨는 이번엔 '공간 속으로' 시리즈 13점을 내놓는다.

는, 발, 나무 무등산, 솟대, 외국의 풍경, 조각들을 만화적인 구조로 화면을 분할해 짜맞춘 작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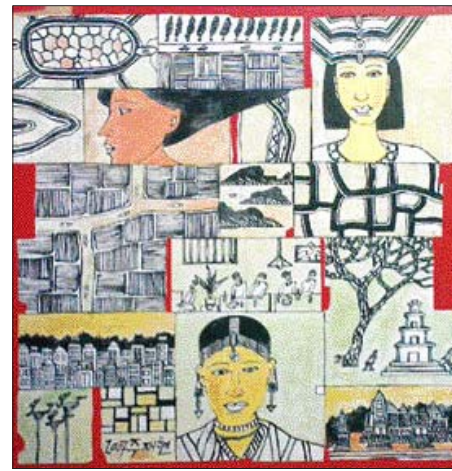
정상섭씨는 강렬한 원색과 파스텔톤으로 화면에 조형성과 리듬감을 부여한 8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꿈꾸고난 후에' '꽃을 위한 아다지오' '매화바람' '등대' 등의 작품을 통해 꽃 위에 피어나는 돌부처 등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한편 지난해 2월 열렸던 'NAAF 2007'에는 한국작가 230여명이 참가했다.

대회 기간에 100여점의 한국 작품이 판매됐고, 현지 갤러리와 국내 작가 20여명이 추가 구매계약 등을 맺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주재현 작 '공간의 속으로'



정상섭 작 '꿈꾸고 난 후'

이항아 시집 '흐름'

김경수씨 풍수로 본 광주땅 이야기 특강

시인 이항아(호남대학교 명예교수)씨가 시집 '흐름'을 펴냈다.

이씨가 서문을 통해 "더 느슨해져야겠다"고 말했다. 시집은 1부 그윽한, 2부 요요한, 3부 섬세한, 4부 울울한 등 네 부분으로 나누었으며 모두 60편의 시가 실렸다.

경희대 출신인 이씨는 1963년 현대문학의 추천을 받아 문단에 등단한 이후 '꽃들은 진저리를 친다' 등 지금까지 15권의 시집을 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오늘 일곱동 '문화사랑방 그날'

월간 '전라도 닷짐'은 30일 오후 7시 광주시 북구 일곱동 '문화사랑방 그날'에서 '전라도 문화마당' 특강을 개최한다.

이날 강연에서는 향토지리연구자 김경수(사진) 씨가 '풍수로 본 광주 땅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한다. 김씨는 '꽃들은 진저리를 친다' 등 지금까지 15권의 시집을 냈다.

생활문화독서 감상문 대회
수필 '차가운 곳에 꽃이 핀다'(김영일 저), 동화 '개비의 신비로운 약'(양봉선 저), 소설 '동거'(정선교 저) 등 지정 도서를 읽은 뒤 읽고자 5~15장 분량의 감상문을 인터넷 접속창에 입력하면 된다. 문의 02-6402-2754. /연합뉴스



'영산강 삼백오십리' '천하명당 금환락지' 등이 있다. 문의 062-654-9085.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사진으로 보는 국보 문화재

문화재청 '한국의 국보 회화·조각' 발간

국보로 지정된 국내 회화·조각 문화재의 생생한 모습이 담긴 책이 나왔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28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중 회화·조각에 대한 원고와 사진을 엮은 '한국의 국보 회화·조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은 지난해 현재 국보로 지정된 회화와 조각의 사진과 해당 문화재에 대한 설명이 담긴 종합 도록으로 엮었다.

그동안 건축문화재·사적·천연기념물·중요무형문화재 등을 대상으로 한 책은 여러권 나왔지만 회화·조각을 다룬 도록은 처음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立春大吉·建陽多慶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입춘방 써주기 행사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은 새해를 맞아 오는 2월3일 우리 민족의 신년 전통인 '무자년 입춘방(立春榜) 써주기' 행사를 연다.

글씨는 이점숙, 박용주, 정재호 등 지역 서예가들이 쓰며 행사 당일 각 가정에서 쓰고 싶은 입춘방 문구를 정해 시립박물관 행사장으로 오면 된다.

입춘방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2월4일)에 맞춰 각 가정의 대문이나 기둥 위에 한 해의 행운과 봄을 반기는 글을 적은 종이를 붙이는 것이다. 보통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 등의 글귀를 써 붙인다. 문의 062-521-904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p>영화보다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p> <h3>메가박스</h3> <p>구. 런던역국사거리 ♥에메1544-0600</p> <p>1관 클로버필드 (15세) 최고급관 2관 무방비도시 (15세) 3관 미스트 (15세) 4관 스니니 토드-어느전함하일발사 이야기 (12세) 5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전제) 6관 에어리언vs프레데터2 (15세) 7관 뜨거운것이 좋아 (15세) 8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전제) 9관 마법에 걸린 사랑 (전제)/엘라의모험 (전제)</p> <p>광주점 무료관객 행사가 종료됐습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p>	<p>—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p> <h3>엔터 시네마</h3> <p>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p> <p>1관 스니니 토드 (18세) 2관 마법에 걸린 사랑 (전제) 3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전제) 4관 무방비도시 (15세) 5관 뜨거운것이 좋아 (15세) 6관 아메리칸갱스터(18세)/7리더리더(15세) 7관 에어리언vs프레데터2 (15세)</p> <p>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워낙-옥외 주차장 300대*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p>	<p>광동시영영시네마 *이메일: www.joyabo.com / 1588-7941</p> <h3>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h3> <p>상무점 (상무병원과 아트 시아) 해남점 (무학회관뒷편)</p> <p>1관 꿀벌대소동(전제)/어린왕자(12세) 2관 미스트 (15세) 3관 엘라의 모험(전제)/무방비도시 (15세) 4관 무방비 도시 (15세) 5관 스니니 토드 (18세) 6관 에어리언vs프레데터2 (15세) 7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전제) 8관 뜨거운것이 좋아 (15세) 9관 클로버 필드 (12세) 10관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 (전제)</p> <p>*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버스시네마 (100명) *정말의 상영중 *성원전용 방편 *1인당 2번~4번</p>	<p>색깔있는 영화선박 * www.cinuse.co.kr / 1544-0070</p> <h3>씨너스 전대</h3> <p>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p> <p>1관 스니니 토드 (18세) 2관 뜨거운것이 좋아 (15세) 3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15세) 4관 미스트(15세)/마법에 걸린 사랑 (전제) 5관 클로버 필드 (15세) 6관 무방비 도시 (15세) 7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전제)</p> <p>*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1544-0070 * 이동형선사 할인혜택 * 선화예매 가능 * 씨너스북사 사무(모바일-배재)</p>	<p>즐거움이 가득 * www.mo12.co.kr / 1588-9101</p> <h3>무등극장</h3> <p>충장로 1가 ☎ 232-9106</p> <p>1관 미스트 (15세) 2관 어린왕자 (12세) 3관 무방비도시 (15세) 4관 스니니 토드 (18세) 5관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전제) 6관 에어리언vs프레데터2 (15세) 7관 꿀벌대소동 (전제)/생즉시공2 (18세) 8관 마법에 걸린 사랑 (전제)/내셔널트러저 (12세) 9관 뜨거운것이 좋아 (15세)</p> <p>*리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합) 3시간 무료주차 * 매일심야 상영을 위한 전용구 마련 *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 편의예매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p>	<p>새로운 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llcinema.co.kr</p> <h3>제일 시네마</h3> <p>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p> <p>1관 우리생애 최고의순간 (전제) 2관 뜨거운 것이 좋아 (15세) 3관 무방비도시 (15세) 4관 스니니 토드 (18세) 5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전제) 6관 어린왕자(12세)/스니니 토드 (18세)</p> <p>*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대입구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p>
---	--	---	--	---	---